

우리는 이미 **변화의 길** 위 에 서 있습니다.

#2030 #입시경쟁 #사교육고통 #해결 #대중운동

사교육걱정없는세상



■ 대학이 관여하는 사설 경시대회에 대한 비판보도(2020.11.25.)

## ‘대학’ 이름 내건 경시대회, 홍보·접수· 성적 처리까지 모두 학원이 대행해...

▲ 코로나發 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육격차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큰 가운데 사교육 시장에서는 초·중학생들에게 전국 석차를 매기는 경시대회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 그런데 일부 대학들이 이러한 사설 경시대회를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며 관여하고 있음.

- ◎ 대회 이름에 대학 브랜드를 내걸고 대회를 주최·주관: 고려대 수학학력평가시험, 연세대 창의수학경진대회
- ◎ 대회 이름에 대학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회를 주최·주관: KNN수학창의력대회/영어학력평가;부산교대
- ◎ 대학이 대회를 후원: HME해법수학학력평가;서울교대,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성균관대

▲ 사설 경시대회에 대학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 ◎ [문제점 ①] 초·중학교는 성적 중심의 획일적 서열화와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제고사를 지양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가진 대학이 학생을 서열화하는 경시대회에 관여하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함.
- ◎ [문제점 ②] 일부 경시대회는 과도하게 어려운 난이도로 문항을 출제할 뿐 아니라, 응시생의 실제 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급학년 응시를 허용하고 있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며, 경시대회 응시료뿐 아니라 경시대비반·대비교재 등 파생 상품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 ◎ [문제점 ③] 경시대회 이름에 유명 대학이나 언론사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사교육 기관에 위탁하는 등 실질적 대회 운영의 주체가 사교육 기관인 경우가 있어 상업적 경시대회가 학생·학부모에게 마치 공신력있는 대회로 오인되고 있음.

▲ 사교육 기관은 일찍이 초등학교 때부터 전국 등수를 매기는 시험으로 엄혹한 입시경쟁 환경에 익숙해져야 한다며 경시대회를 홍보하고 있음. 이에 경시대회 수상실적이 학생부 기재 및 상급학교 입시에 활용할 수 없음에도, 사설 대회에 최대 수만 명까지 몰리고 있음.

▲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사설 경시대회에 관여한 대학들에 빠져린 각성을 촉구하며, 교육부에 △초·중학생 경시대회에서의 전국등수 제공, 상위학년 응시행위, 과도하게 어려운 문항 출제 금지, △영리 목적의 사설 경시대회의 응시처로 초중고 및 대학교 장소 대여 금지, △

대학이 사설 경시대회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대책 마련,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업성취 현황을 학부모와 적극 소통하도록 지원 등을 요구하는 바임.

사교육 시장에서는 초·중학생들에게 전국 석차를 매기는 경시대회 상품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일부 대회들이 내년으로 연기됐지만, 대부분은 오프라인 시험을 축소·폐지하고 온라인 시험을 병행·대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 중 응시생 규모가 가장 큰 HME 해법수학 학력평가는 상반기 응시생 규모가 작년 6만여 명에서 올해는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예년에 비해 올해 응시생이 확연히 줄어든 것은 오프라인에 비해 온라인 시험에 대한 신뢰도가 낮고 감염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 년간 경시대회 응시생 규모가 점진적으로 늘어왔던 추이를 감안할 때, 코로나 장기화로 교육격차에 대한 학부모 불안이 자칫 전국 단위로 성적을 서열화하는 경시대회 수요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가 큼니다.

[표 1] HME 해법수학학력평가(천재교육) 연도별 응시생 규모

\*작년(2019년) 기준으로 초등생 114,158명 중학생 8,270명(총 122,528명) 실제 응시

		상반기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중등 계	
2014년 상반기	지원	2,582	4,214	5,199	7,292	8,150	8,515	35,952	1,380	1,088	586	3,054	39,006
	응시	2,407	3,887	4,822	6,901	7,768	8,102	33,887	1,300	1,033	557	2,890	36,777
2015년 상반기	지원	2,587	4,732	5,589	6,697	8,449	9,477	37,531	1,109	693	520	2,322	39,853
	응시	2,427	4,425	5,197	6,279	7,992	8,864	35,184	1,010	627	450	2,087	37,271
2016년 상반기	지원	2,984	4,728	6,662	7,539	8,152	9,560	39,625	1,399	732	512	2,643	42,268
	응시	2,740	4,400	6,298	7,192	7,763	9,105	37,498	1,340	679	461	2,480	39,978
2017년 상반기	지원	3,639	5,721	7,121	9,174	9,393	9,106	44,154	2,429	934	546	3,909	48,063
	응시	3,444	5,412	6,772	8,828	9,039	8,768	42,263	2,253	863	507	3,623	45,886
2018년 상반기	지원	3,746	6,225	7,720	9,981	11,814	10,339	49,825	2,749	834	526	4,109	53,934
	응시	3,531	5,903	7,371	9,651	11,403	9,986	47,845	2,607	800	492	3,899	51,744
2019년 상반기	지원	5,142	7,156	9,232	10,519	12,506	14,100	58,655	3,382	956	436	4,774	63,429
	응시	4,923	6,845	8,871	10,240	12,235	13,834	56,948	3,273	923	412	4,608	61,556
2020년 상반기	지원	1,408	1,974	2,180	2,319	2,329	2,184	12,394	854	292	92	1,238	13,632
	응시	1,340	1,860	2,068	2,237	2,243	2,129	11,877	836	278	87	1,201	13,078

하반기

최근 7년간 하반기 HME 연도별 참여 현황

		초등학교						중학교				합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초등 계	1학년	2학년	3학년		중등 계
2013년 하반기	지원	2,962	3,389	4,207	5,544	5,749	5,181	27,032	806	463	150	1,419	28,451
	응시	2,812	3,183	3,997	5,297	5,446	4,920	25,655	771	431	137	1,339	26,994
2014년 하반기	지원	3,316	3,558	4,077	5,693	5,830	4,629	27,103	804	503	178	1,485	28,588
	응시	3,119	3,347	3,841	5,368	5,482	4,387	25,544	761	465	161	1,387	26,931
2015년 하반기	지원	3,729	4,534	4,712	5,900	6,481	6,084	31,440	1,770	579	238	2,587	34,027
	응시	3,590	4,336	4,532	5,675	6,264	5,879	30,276	1,717	554	224	2,495	32,771
2016년 하반기	지원	4,263	5,198	6,293	7,329	7,256	7,190	37,529	2,625	647	302	3,574	41,103
	응시	4,087	5,002	6,066	7,107	7,011	6,920	36,193	2,527	610	292	3,429	39,622
2017년 하반기	지원	4,814	5,480	6,025	8,639	7,703	6,648	39,309	2,435	533	282	3,250	42,559
	응시	4,584	5,199	5,770	8,339	7,438	6,424	37,754	2,342	498	247	3,087	40,841
2018년 하반기	지원	5,809	7,162	7,422	10,339	10,656	8,116	49,504	2,568	578	203	3,349	52,853
	응시	5,547	6,842	7,175	10,054	10,382	7,878	47,878	2,475	561	190	3,226	51,104
2019년 하반기	지원	7,348	8,194	9,427	11,153	12,070	10,491	58,683	2,947	560	237	3,744	62,427
	응시	7,091	7,928	9,156	10,924	11,845	10,266	57,210	2,891	540	231	3,662	60,872

[표 2] 초·중학생 대상 사설 경시대회(학력평가) 상품

\*대학이 주최·주관·후원으로 관여하고 있는 경우 **음영 표기**

번호	상품명	주최사	주관사	대상	후원사	응시료	개인정보 위탁사(시행사)	상위학년 응시 가능여부
1	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천재교육	한국학력평가인증연구소	초1~중3	서울교대	30,000원		가능
2	KMA 한국수학학력평가(구 KME)	㈜에듀윌	한국수학학력평가연구원	초1~중3	㈜왕수학연구 구소, 수리안	30,000원		가능
3	KMC 한국수학경시대회	한국수학교육학회	한국수학교육평가원	초3~고3	동아일보	45,000원	㈜하늘교육	가능
4	KUT 고려대학교 수학학력평가시험 *2018년 시행 중단 후 2020년 재개	고려대학교 전국 수학학력평가시험 진행본부		초1~중2		30,000원		불가
5	연세대 창의수학경진대회 *2020년은 코로나19로 미개최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초1~중3		45,000원	㈜하늘교육	가능
6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구 성대경시)		글로벌영재학회	초1~중2	성균관대 동아일보	45,000원	㈜하늘교육	불가
7	MBC 아카데미 전국 초·중 영어·수학 학력평가	MBC 아카데미		초1~중3	중앙일보	30,000원	㈜하늘교육	불가
8	WMO 전국창의융합수학능력인증시험	WMO조직위원회 중앙일보	WMO Korea (사)한국창의정보문화학회	초3~6	OMS에듀	20,000원(예선) 50,000원(본선)	㈜씨엠에스 에듀케이션	(알 수 없음)
9	KMSE 한국수학과학학력평가 / 전국 초·중학생 학력평가	(사)한국융합교 육과학연구원	한국초중등평가학회, 한국융합교육공학회	초1~중3	한국교육평가 센터이브자리	20,000원 27,000원		(알 수 없음)
10	KET 주니어중등 수능모의고사		KET, (사)한국미래교육평가연구원	초4~중3		10,000원		가능
11	TESOM 비상교육 수학학력평가	㈜비상교육	한국수학평가개발원	초1~중3		30,000원		가능
12	KNN수학창의력대회/영어학력평가	부산교육대학교 KNN	부산교육대학교 창의성교육 연구소, KNN글로벌미래교육원	초3~6	BNK부산은행 넥센월석문 화재단	33,000원		불가

특히 초·중학생 대상의 사설 경시대회 가운데에는 대학이 주최·주관·후원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대회들은 △‘고려대 수학학력평가지험’, ‘연세대 창의수학 경진대회’처럼 대회 이름에 대학 브랜드를 직접 내걸고 대회를 주최·주관하거나, △‘KNN수학창의력대회/영어학력평가’처럼 대학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대학(부산교대)이 대회를 주최·주관하거나, △‘HME해법수학학력평가(서울교대)’,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성균관대)’처럼 대학이 후원하는 방식 등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사설 경시대회에 대학이 주최·주관 및 후원으로 관여하는 것은 △일제고사 방식의 성적 서열화로 불안감 확산 및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선행학습을 유발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상업적 경시대회가 마치 공신력있는 대회로 오인될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됩니다.

**■ 문제점 ①: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공적 책무를 가진 대학이 학생을 서열화하는 경시대회에 관여하는 것은 학생·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함.**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가 폐지되고, 중학교에 성취평가제가 도입되면서 초·중학교 현장은 성적이라는 획일적 잣대로 학생을 서열화하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일제고사 시행을 최소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초·중등 교육 현장에서 일제고사가 지역/학교/학생 간 등수 경쟁이나 시험대비식 교육과정 운영, 과열 경쟁 및 사교육을 부추기는 등 학교교육의 파행을 초래하는 폐단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대학이 공적 책무를 몰각한 채 학생을 서열화하는 경시대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학교교육 정상화를 역행하는 모순적 행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경시대회에 관여하고 있는 대학들은 국립대이거나 유명 사립대로 선호도가 높은 학교들입니다. 따라서 학생·학부모 입장에 초·중학교에서 시행되는 과정/성장중심평가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사설 시험을 응시해야 할 것만 같은 불안감을 주기 쉽습니다.

**■ 문제점 ②: 일부 경시대회는 과도하게 어려운 난이도로 문항을 출제할 뿐 아니라, 응시생의 실제 학년보다 높은 학년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상급학년 응시를 허용하고 있어 선행학습을 유발하며, 경시대회 응시료뿐 아니라 경시대비반·대비교재 등 파생 상품으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사설 경시대회에서 출제되는 문항 중에는 정상적인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이도인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교대가 후원하고 있는 ‘HME 해법수학 학력평가’의 경우 올해 시행된 초등학교 3학년 문항 중 정답률이 0.0%이었던 25번 문항은 해당 학년 응시자(2,068명) 가운데 단 3명만이 정답을 맞출 정도로 극악한 난이도였습니다. 또한 ‘전국 초·중학생 학력평가’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입 수준과 동일한 난이도·유형의 문항을 출제함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림 1] 지나치게 어렵게 출제하는 사설 경시대회

**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25.** 한 변의 길이가 43 cm인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잘라서 짧은 변의 길이는 3 cm, 긴 변의 길이는 7 cm인 직사각형 모양의 조각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들을 길이가 같은 변끼리 맞게 이어 붙여서 네 변의 길이의 합이 가장 긴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직사각형 모양의 가로와 세로의 합은 몇 cm입니까?

(    ) cm

정답률

문항 번호	정답		정답 학생 수
	정답	정답률 (%)	
25번	619	0.0	3

(2020.7.11.시행) 초등 3학년 응시생 총 2,068명 중

---

**전국 초·중학생 학력평가**

〈초중학생 학력평가〉로 수능형 문제를 먼저 경험해 보세요.

대입 수능은 교과서 수준의 지식/이해/적용 수준의 문제와 1~4등급을 가르치는 분석/종합 영역의 문제가 함께 출제됩니다.

초등학교 시기부터 높은 변별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풀이에 익숙해져야 체계적인 학습과 종합적 사고력, 논리적 분석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초중학생 학력평가는 다른 평가에서 볼 수 없는 분석/종합 수준을 포함, 5단계 난이도로 구성된 평가문항을 과목별로 출제하여 평가합니다.

**〈초중학생 학력평가〉는 〈대입 수능〉과 동일한 난이도, 유형의 문제를 출제합니다.**

평가영역	학교교육과정(교과서) 수준의 문제			수능 3-4등급을 가르치는 문제	수능 1-2등급을 가르치는 문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학교 수업/평가	40%	40%	20%		
단원/월말평가	40%	40%	20%		
대입수학능력시험	10%	30%	40%	20%	10%
초중학생 학력평가	10%	30%	40%	20%	10%

<https://blog.naver.com/kceekr2018/221736188013>

또한 HME해법수학학력평가, KMA 한국수학학력평가, KMC 한국수학경시대회, 연세대창의수학경진대회, KET 주니어중등수능모의고사, TESOM 비상교육수학학력평가 등 많은 경시대회들이 응시생의 실제 학년보다 높은 상위 학년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을 앞세워 광고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상위 학년의 학습 내용을 평가하는 시험을 응시하도록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 후 시험에 응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선행교육 조장 행위입니다.

[그림 2] 선행 사교육을 유발하는 사설 경시대회

**초3학오**  
 이걸 그냥 현실적인 것인데... 나중에 사고려 학원이나 요즘 인기있는 학원 등 입테나 레벨업 테스트 볼때 성대경시 난이도가 많이 나와서 원하는 반에 들어가기 수월해집니다^^  
 수학머리 크다 이런 관점 말고 현실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해주세요.  
 2020.09.09. 12:51

[그림 3] 상위 학년 응시를 허용·광고하는 사설 경시대회

### HME 해법수학 학력평가

**Q. 초등학교 3학년 아이, 선행학습의 개념으로 4학년 시험을 응시해도 되나요?**  
**A. 가능해요~ HME 시험은 한 학년 위로도 응시가 가능하며, 유치부는 1학년 시험으로 응시가 가능!** 그리고 홈스쿨링이나 자퇴 등으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학생도 응시 가능해요!  
 blog.naver.com/storychunjae/22212398418

연세대 창의수학경진대회

**3 응시생 기타정보**

학교 \*  ▶ 검색 실제학년 \* ==학년== 반  
(미취학 '예비초등' 입력) (미취학 '0'반으로 입력)

집전화 \*  \* 구분 핸드폰 \*  \* 구분

우편번호 \*  ▶ 검색

주소 \*

보호자성명  연락처

E-Mail  @  선택

---

**4 고사장 및 응시학년 선택**

고사장 \* 고사장 선택

응시학년 \* 응시학년 선택 응시료 45,000원/과목

결제하실금액 **0원** (카드결제만 가능)

#### KMA 한국수학학력평가

**2020년 상반기**  
**KMA 한국수학학력평가**

**시험일시** 2020년 7월 4일(토) 오후 2시

**접수 기간** 2020.04.01(화) ~ 2020.06.19(금)

**접수 대상** 초등 1학년 ~ 중등 3학년 상급 학년 응시 가능

**평가 범위**  
 초등: 1단원 ~ 5단원 (초등 1학년은 1단원~4단원)  
 중등: 1학년 - II. 문자의 식 1, 문자의 사용과 식의 계산  
 2학년 - III. 일차 부등식과 연립방정식 1. 부등식  
 3학년 - II. 문자와 식 까지

**응시료** 30,000원


**접수 방법** KMA 지역별 접수처 또는 온라인 접수

**채점 방법** OMR 카드 채점

**평가 문의** 070-4861-4832

온라인 접수하기

#### KET 주니어·중등 수능모의고사



**2020.02**  
**주니어·중등**  
**수능모의고사**

**특징**

- ▶ 자유로운 상위 학년 응시 가능 (초3 과정까지)
- ▶ 정기적 실력평가를 통한 학습이력 축적 및 지속적인 성적 관리
- ▶ 전국적 비교평가를 통한 정확한 개인 학업 성취도 확인
- ▶ 영역별 성적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전략 제시
- ▶ 장기적 진로목표에 따른 초등부터 대입까지의 맞춤형 학습 설계 프로그램인 중장기 학습 로드맵 제시

**응시 안내**


- ★ 대 상 초등 4-5-6학년 / 중등 1-2-3학년
- ★ 응 시 료 1만원
- ★ 일 시 2월 6, 7, 8일 (목, 금, 토)
- ★ 장 소 은평하이스트학원
- ★ 시험과목 수학, 진학조사 설문(중장기 로드맵 관련)

이처럼 사설 경시대회에서 과도하게 어려운 난이도의 문항을 출제하고, 응시생의 선택에 따라 상위학년 응시를 허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교육규제법’)’ 제8조4항에서 금하고 있는 선행학습 유발 광고로 법에 저촉되는 소지가 있으며, 학생·학부모에게 불안을 야기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불신 및 사교육을 조장하는 교육적 해악도 큼니다. 일부 맘카페에서는 선행교육으로 유명한 학원의 극악한 난이도의 학원 입학테스트와 레벨업 시험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초등 이른 학년부터 사설 경시대회를 준비한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즉, 사설 경시대회가 선행 사교육 수요를 유발하고, 선행 사교육이 다시 사설 경시대회 수요를 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설 경시대회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경시대회를 응시에는 회당 3~4만원선의 과목당 응시료만 드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교육만으로 대비가 어려운 고난이도 문항 탓에 학원에서는 이를 대비하여 반복적 문제풀이를 하는 경시대비반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출문항 및 예상문제집과 같은 교재 시장도 크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설 경시대회는 또다른 사교육 파생 상품을 낳으며 사교육 시장의 덩치를 키우고 가계의 사교육비 고통을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경시 대비 사교육’은 더 이상 극소수의 상위권만을 위한 시장이 아니며, 이를 결코 작은 규모의 시장으로 치부한 채 묵과하고 넘어가서는 안될 것입니다.

게다가 사설 경시대회에 사교육 기관이 아닌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이 주최·주관·후원하는 것도 모자라, 일부 대학 경시대회는 올해 학원들에 단체접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공문에서는 ‘모의고사 문제집(5회)을 구입 후’ 경시 대비가 가능하다는 문구와 함께 학원이 학부모측에 보낼 응시 신청서 양식까지 첨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대학이 주최한다는 경시대회가 사교육 시장에서 어떻게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 4-1] 경시대회 주최사(대학)가 학원에 보낸 공문



고려대학교 전국 수학학력평가시험

## 고려대학교 "전국 수학학력평가시험"

-701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자연계캠퍼스 산학관 307호 Tel:1599-3291 담당자 :

---

☎ : KUNET - 호  
 ☎ : 2020 01 01  
 ✉ : **원장 선생님**  
 ✉ : 교수부장 선생님  
 ✉ : 전국 수학학력평가시험 고사운영본부

선결		지시	
접수	일차시간	결재	
	번호		공임
	처리과		
	담당자		

---

☎ : 고려대학교 "전국 수학학력평가시험" 개최 안내 (제 12회)

---

i.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1. 고려대학교 "전국 수학학력평가시험" 제 12회를 전국 규모로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2. 본 시험은 성적 우수학생들에게는 각 학년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의 수상혜택과 응시자별 성적표 및 상세분석표를 제공합니다. 또한 단체 및 지도교사에게는 성적우수단체상 및 지도교사 시상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귀원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의 참여를 바라며, 학부모 공지 또는 귀원에서 단체접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편리하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응시지원서) 단체접수도 가능하오니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i. 귀원의 우수한 인재의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래 -

- 대 회 명 : 고려대학교 "전국 수학학력평가시험" - 2020년 상반기 (제 12회)
- 참가대상 : 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 시험일시 : 2020년 05월 30일(토) 13:30 - 14:30(25문항/60분)
- 접수일시 : 2020년 02월 17일(월) ~ 2020년 05월 10일(일)
- 출제범위 : 수학 - 각 학년별 5월과정 까지(\*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 시상내역 : 각 학년별 대상(1등) / 최우수상(상위 10%) / 우수상(상위 20%) / 장려상(사위 50%)  
학원 및 학교 등 성적우수 단체 및 지도교사상 수여
- 접수방법 : 온라인 개인접수 또는 지정 접수처 단체접수
- 단체시상 : 단체접수 대상 "최우수/우수 단체상" 수여
- 구비서류 : 응시지원서, 사진 파일(홈페이지 업로드용), 응시료 30,000원
- 시험대비 : 모의고사 문제집(5회) 구입 후 대비 가능
- 시험문의 : 1599-3291 / www.kutest.co.kr



고려대학교 전국 수학학력평가시험 고사운영본부



[그림 4-2] 경시대회 주최사(대학)가 학원에 보낸 공문



## 가 정 통 신 문

**대회안내**

- 시행일자  
**2020.05.30. (토) 수학 : 13:30pm**
- 접수기간 : 2020년 02월 17일 ~ 05월 10일
- 수험표 출력기간 : 2020년 05월 25일 ~ 05월 29일
- 참가대상 : 초등 1학년 ~ 중등 2학년(2020년 신학년 기준)
- 참가비용 : 수학 30,000원
- 교 사 장 : 전국 각 지역별 지정교사장
- 접수방법 : 온라인 개인접수, 지정 접수처 접수

**성적발표 및 성적결과 분석표 제공**

- 2020년 06월 14일 (화) 오전 10:00 (홈페이지발표)
- 응시자 전원에게 성적결과 분석표 제공

**시상내역 및 특전(개인/단체)**

- 각 학년별 대상/최우수상/우수상/장려상 시상
- 전국 도, 광역시 단위별 1등 시상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시상 및 특전 참조

**시상식 안내**

- 시상식 : 2020년 07월 04일(토) /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수험생 유의 사항**

- 자원서 작성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며 응시자는 향후 2년간 본 시험을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대회당일 수험자 및 보호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시험시간 30분 전 교사실에 입실하여 감독관의 주의사항에 따릅니다.
- 응시생 준비물 : 수험표, 컴퓨터용 수성사인펜(흑색), 연필, 지우개 등  
\* 수험표 미지참시 시험 응시가 불가 합니다.
- 응시자 인적사항(이름, 학교, 접수소 등) 변동 시 반드시 교사용영 본부로 연락바랍니다.

**수학 시험문항(시간)/출제범위**

부분	학년	출제범위	문항	시간
초등	1학년	해당 학년별 교과과정 5월과정까지	25	60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중등	1학년			
	2학년			

**출제유형 - 문제샘플 및 모의고사 문제집 참고**

고려대학교 전국 수학교력평가시험 교사용영본책  
Tel : 1599-3291 / www.kutest.co.k

---

**응시지원서** 단체명 : \_\_\_\_\_

\* 접수 등록완료 후 수험번호와 교사장 확인 가능/수험표 출력 기간에 수험표 출력 후 시험 응시

성 명		성 별	<input type="checkbox"/> 남자 <input type="checkbox"/> 여자
응시구분	<input type="checkbox"/> 초등 <input type="checkbox"/> 중등 (2020년 신학년 기준)	학년	
생년월일	1 2 0 1 0 1 - 1	수험표, 성적표회 확인에 사용됩니다.	
소속학교명	시(도) _____ 구(군) _____	학교	학년
접주소			
전화	휴대폰	보호자명	

■ [문제점 ③]: 경시대회 이름에 유명 대학이나 언론사를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응시생의 개인정보를 사교육 기관에 위탁하는 등 실질적 대회 운영의 주체가 사교육 기관인 경우가 있어 상업적 경시대회가 학생·학부모에게 마치 공신력있는 대회로 오인되고 있음.

사실 경시대회 가운데에는 실질적 운영 주체가 사교육 기관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하늘교육’은 ‘KMC 한국수학경시대회’, ‘연세대 창의수학경진대회’,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MBC아카데미 전국 초·중 영어/수학학력평가’ 등 대학이나 학회, 언론사 이름을 전면으로 내세운 4개의

전국단위 초·중학생 학력경시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4개의 경시대회 홈페이지에 고시된 개인정보위탁처, 운영 업체 정보 등을 면밀히 비교한 결과, 시행사는 모두 (주)하늘교육이었으며, 방문접수처도 (주)하늘교육에서 운영하는 전국 각지의 학습지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회들이 사교육 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그것도 같은 업체에서 운영하는 대회라는 것을 아는 소비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경시대회 이름이나 주최·주관·후원사 정보에는 ‘(주)하늘교육’이 아닌, 각각 다른 대학 산하 기관이나 학회, 언론사 등의 이름으로 갈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험 응시처로 대학이나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대여하여 시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사실상 사교육 기관이 운영 주체인 상업적 경시대회가 유명 대학, 언론사 이름에 힘입어 학생·학부모에게는 마치 공신력있는 대회로 오인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림 5] 대학 주최 경시대회와 사교육 기관의 관련성

**종로학원하늘교육 홈페이지**

**4. 전국 규모 경시대회**

한국수학경시대회(KMC)	한국수학교육학회 주최 한국수학교육평가원 주관 / 동아일보 후원
전국 영어/수학 학력경시대회	글로벌 영재학회 주최 / 성균관대학교, 동아일보 후원
전국 초·중 영어/수학 학력평가	MBC아카데미주최
연세대학교 창의수학 경진대회	연세대학교 주최 /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주관

<http://www.jongroedusky.co.kr/es2016/sys/03.asp>


---

**연세대학교 창의수학 경진대회 홈페이지**

대회안내    접수방법/고사장    온라인접수    정답/성적확인    자료실    게시판

**제 5회**  
**연세대학교 창의수학 경진대회**

시 험 일 : 2019년 11월 3일(일)  
정답발표 : 2019년 11월 3일(일) 오후 6시  
성적발표 : 2019년 11월 26일(화)



**개인정보보호정책**

- <(주) 하늘교육>(연세창의수학경진대회 운영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주) 하늘교육>(연세창의수학경진대회 운영위원회)는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4.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회사는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개인정보 위탁 처리 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탁업체	위탁업무 내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연세대학교 창의수학 경진대회 운영위원회	성적, 수상실적 등 각종 데이터 관리	계약 종료시까지
	홈페이지 및 프로그램 서버관리	
	각종 경시대회 원서접수 및 성적처리	
	입시관련 정보제공 및 입시설명회 관련 각종 SMS발송	
이니시스	금융거래 본인 인증 및 제반 금융 서비스	

이는 경시대회를 활용한 일부 학원들의 홍보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6], [그림 7]과 같이 대학이 주최하는 경시대회의 ‘지정학원’임을 강조하고 인근 초·중학교의 이름도 병기하여 광고하거나, 사립초나 대학 등이 선정한 평가임을 앞세워 해당 학원과 경시대회의 공신력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림 8]과 같이 ‘초·중학교에서의 수행평가, 단원평가 위주의 과정중심평가만으로는 장기기억으로 저장되지 않는다’며 근거 없이 공교육의 평가 방식을 폄하하거나, ‘수학이 전공·대학·직업·연봉을 결정한다’거나 출세우기 방식의 일제고사 응시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자극적 문구로 경시대회를 홍보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일찍이 사설 경시대회로 전국 등수를 매겨 엄혹한 입시경쟁 환경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림 6] 대학 주최 경시대회를 활용한 학원 홍보물



[그림 7] 사립초 및 대학이 선정한 평가임을 홍보하는 사설 경시대회

한국교육평가센터 2019. 12. 17. 16:44 URL 복사 +이웃추가

전국 초중학생 학력평가

## 사립초, 학원연합회, 대학이 선정한 학력평가

초중학생의 기초학력 향상과 올바른 학습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학습실력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개인별 맞춤학습을 할 수 있는 적절한 형태의 학력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초중학생 학력평가>는 초중학생 자녀의 현재 학습실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높은 변별력과 다양한 평가 난이도로 평가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 학력평가입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kceekr2018/221740379303>

[그림 8] 사설 경시대회에 대한 홍보글


학습한 내용을 단기 저장을 잘 하는 학생이 학습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학습한 지식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그 지식은 뇌 속에서 제거되어 기억에서 사라집니다. 망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초등학교 때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이 우수하다고 여기다가 중학교에서 부족함을 느끼는 이유가 장기 저장된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단기 기억만을 주로 평가하는 수행평가와 단원평가 중심으로 학교 교육이 진행되다보니 학생들의 장기 지식을 저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본 지식을 튼튼히 쌓아 올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조직화 하는 훈련 학습법이 초등학교 시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한국교육평가센터 / 초·중학생 학력평가  
타임라인 사진에 한국교육평가센터 / 초·중학생 학력평가님이 게시한 사진 · 3월 13일 ·



**밴드 소개**

초등학생 · 중학생을 위한 의·치·약·컴공·한의대 및 이공계 진학 프로젝트

초·중·고 수학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목적은 같다  
수학이 전공과 대학, 직업과 연봉을 결정한다!

**K-MSE(한국 수학과 학력평가)**

수학 초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



※ 2020년 대한민국 수학학력평가의 개념이 바뀝니다!

학원 수학학원

사설 경시대회와 같은 교외 수상 실적은 상급학교 입시에 활용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경시대회에 한해 10만명이 넘는 초·중학생들이 응시하고, 이를 대비하는 수많은 학원 상품과 교재들이 판매되는 것은 ‘학교교육을 얼마나 잘 배우고 있는지’에 대한 학부모 불안이 크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일수 축소에 따라 학교 평가도 간소화되면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상대적 성적 서열에 대한 불안감을 자극하는 사교육 마케팅이 확산될 우려가 큼니다. 줄 세우기 교육을 조장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하는 사설 경시대회, 특히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관여하는 전국 단위 시험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다음과 같이 교육 당국에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 ■ 우리의 요구

1. 초·중학생 대상의 경시대회에서는 ‘전국 등수(백분위) 제공’과 ‘상위 학년 응시’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때 이른 시기부터 과도한 경쟁과 선행학습 유발을 예방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2. 사설 경시대회에 관여한 대학들에 뼈저린 각성을 촉구하며, 대학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더 이상 사설 경시대회의 주최·주관·후원처 등 어떤 형태로든지 관여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3. 교육부는 사설 경시대회에서 과도하게 어려운 문항출제 및 상위학년 응시 행위를 금하고, 영리 목적의 사설 경시대회 응시처로 초중고 및 대학교 장소 대여를 금해야 합니다. 또한 대학이 사설 경시대회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교육부는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업성취 현황을 학부모와 적극 소통하도록 지원하여 코로나 시국에 학교 현장에서 간소화된 평가가 자칫 학부모 불안을 야기해 사설 경시대회 참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020. 11. 25.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선임연구원 신소영(02-797-4044, 내선 510)